



엠폭스 위기경보수준 '주의'로 격상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의 엠폭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였습니다. 전 세계적 발생은 감소 추세이나,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의 발생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1주 내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보다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확진자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 특성상 일반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낮고, 환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며, 치료 및 진단 등의 충분한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서는 질병의 주요 증상을 확인하시고, 증상이 의심된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엠폭스 질병개요

구 분	내 용
정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감염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 가능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을 통한 전파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잠 복 기	• 5~21일(평균 6~13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남 * '22년 5월 이후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발진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점막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남 -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뽀루루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 *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 홍역, 옴, 매독 등과 감별 진단 중요함 '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계통 엠폭스는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됨 *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소아,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 풍토병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의 치사율은 약 10%로 보고됨 전구기(3~5일 간): 전염력이 강한 시기
진 단	•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 필요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치료 시행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준수 환자: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되고 새로운 피부형성) 1인실 격리 입원·치료 의사환자: 1인실 격리병상 배정 후 검체 채취(검사결과 시까지 격리유지)

예 방

- 예방접종
 - 3세대 두창 백신은 효과가 입증되어 FDA(미국)과 EMA(유럽)에서 두창과 엡폭스 백신으로 3세대 백신을 승인한 바 있음
-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①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 ②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 ③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 ④ 엡폭스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2023. 2. 22.

질병관리청

엡폭스

예방 및 행동 수칙

대국민용



엡폭스 예방수칙

- ✓ 손 씻기 등 개인적인 위생 수칙 준수
 - *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사용
-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 엡폭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 엡폭스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접촉 삼가
- ✓ 엡폭스 의심증상자와 부득이한 접촉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 아프거나 죽은 동물과의 직접 접촉 및 사용 물품 주의
- ✓ 아프리카 수입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 주의



엡폭스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 엡폭스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2023년 4월 18일

정 명 고 등 학 교 장